



추위 잇은 구제역 방역

광주 남구는 구제역 방역체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6일부터 주요 관문 4곳에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고 400여명의 공무원을 3개조로 나눠 24시간 근무에 돌입했다. 남구 직원들이 포항사 앞 도로에서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李대통령 “구제역 막을 근본책 세우야”

#### 긴급 장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구제역 확산 사태와 관련, “연간 (해외) 여행객이 1천500만명이나 나가고 800만명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니 구제역도 감염이되지만 환체를 비롯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행객이 늘어난다는 면에서 감염만 갖는 (예방)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항체를 비롯해 근본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는 백신 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국, 베트남의 경우 연중 구제역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

겠다”면서 “그런 면에서 당장 대책도 세우지만 근본 대책을 세워서 내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설 연휴가 상당히 길다는 사실을 언급,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을 비롯해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치밀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무원과 수의사들에 대해서도 “사명감 없이는 못 할 일인데 대단히 애쓰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격려를 보낸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많이 격려했으면 좋겠다”고 치하했다. 한편, 국방부는 구제역 방역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30개 시군에 병력 6만8천명과 장비 772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금남로·광주천·푸른길 3대축 재생

광주시 '창조적 도시재생 기본구상' 확정  
전남·일신방직 문화예술창조지구  
광주역~문화전당 테마가로 조성



동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금남로와 광주천, 푸른길을 3대 재생축으로 하는 광주시의 '창조적 도시재생 기본구상'이 확정됐다. 전남방직 등 근대유산을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키고 금남로·충장로는 기존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6일 “민선 5기 도심 상정구조물(어반 폴리) 설치,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기 등 기존 결정된 사업 이외에 전남·일신방직을 문화예술창조지구로 조성하고 금남로를 보행자 천국으로 재편하는 등 새로운 구상이 망라된 도심 재생 기본구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구상에 따르면 금남로의 경우 ▲금남로 일대의 차량을 지하로 유도하고 지상부 전체를 녹도(綠道)화하거나 일부에만 대중교통을 허

용하는 방안 ▲일제강점기에 소실된 광주읍성과 해자의 상징적 재생방안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 가로로 조성된다. 또 전남·일신방직은 대중음악 연습장 및 공연장, 시민 창조공방, 방직박물관, 예술가 창조공방 등이 들어서는 '시민문화예술 창조지구'로 재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천의 천변과 일부 구간(금교~전남방직)과 천변으로 일부 구간(방직공방~무등경기장)을 대상으로 '리버 워크 조성사업'을 실시해 이 구간의 차량통행을 방지하러, 보행을 지상으로 유도하면서 수변공간을 구도심과 직접 연결시킬 방침이다.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그 주변이 개발되는 광주역과 문화전당까지 4km 구간을 소풍·먹거리·문화공방 등 테마가로로 특색있게 꾸미는 한편, 광주공원(청소년광

## 7개월간 7억원 번 정동기 청문회 통과할까

### 최중경 내정자는 재산세 체납 의혹

'12·31 개각'의 최종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고 각 후보자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 정국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이근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정동기 내정자의 경우 19일 후보자 질의 답변에 이어 20일에는 증인-참고인 신문하는 등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가짜전염병 개장인'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분회 의를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어 처리

키로 했다. 이처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자 여야는 검증작업에 사동을 걸었다. 특히 지난해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열리는 데다 4월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의 제1 목표는 정동기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 만에 법무법인에 취직, 7개월 동안 7억여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7

개월간 매달 1억원씩 총 7억원을 벌었다는 데 대해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BBK사건 검찰수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으로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민간인 사찰의 배후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정동기 후보자를 겨냥, “헌법 정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최중경 내정자를 놓고는 재산세 체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 민주 '청문회 보이콧' 없던 일로 여야 청문특위 인선

민주당이 논란 끝에 '12·31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애초 청문회 참여를 기정 사실화한 상황이었으나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에 응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는 '야당의 잔치'인 청문회를 포

기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등 초반부터 일부 후보자들의 재산문제가 불거지면서 야당에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위원장으로 3선의 최병국 의원을 내정했고, 정진섭 의원을 간사로 권성동·김효재·성윤환·유정현·이상권 의원 등 총 7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3선의 유선호 의원을 간사로, 전병헌·박선숙·조영택 의원 등 4명을 특위 위원으로 내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KBC 광주방송 문화탐방**

무안 - 광 전세기

# 광 특가 상품 출시

산타페 관광 **799,000 원**~

1월 6일, 10일, 14일, 18일, 22일, 26일  
**꼭찬 3박4일** <무안-광 08:55-13:55 / 광-무안15:35-19:20>

**예약문의** 롯데JTB첨단점 첨단롯데마트 2F 062-973-9114  
 클럽모두 동광주홈플러스 B1 062-269-9363

협찬 | Continental Airlines | 컨티넨탈 항공 | 광주관광진흥위원회 | WOOJIA 우림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필수 경비 포함: 여행보험(해의 1억원, 국내 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안내원비용  
 2억 보증보험 가입(보장기간: 2010년 12월 7일~11년 12월 6일)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광주시 북구 두암동 575-1 홈플러스 동광주점내 (주)클럽모두 해외여행업 등록 최소 출발 인원: 2명 / 속수: 2급호텔 이상 / 교통편: 항공 및 버스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